

## 1. 만주족 정복왕조: 만주의 역사적 개념 정립

### 전통적인 동아시아 역사 서술: 중화 이념에 근거한 한족 중심의 접근법

중국의 건국 설화는 청동기 (기원전 2200-500) 초기에 낙양을 중심으로 북중국 평원지대에 위치 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하(夏 기원전 2070-1600) 왕조로부터 시작한다. 하 왕조를 수립했다는 우(禹)왕은 전설로 내려오는 오제(五帝 기원전 3000-2200)의 덕치(德治) 전통을 이어 받은 것으로 서술된다. 중화(中華)란 중원(中原)의 “번성하는/찬란한/빛나는” 하(華夏) 사람을 의미한다.<sup>1</sup> [A.1.5.]

한(漢)족 중심의 중심부-주변부 (center-periphery) 접근법을 보면, 「천하의 중심에는 천자(天子)가 다스리는 한족 중국(中國)이 있고, 그 주변의 비 한족 야만인들은, 중국 천자가 확립한 국제 질서에 순응해, 조공을 바치며 중화 문명의 은택을 보고 살아왔다」는 식으로 동 아시아 역사를 서술한다. 소수의 사학자들이 「그래도 이따금씩은 중화 중심 세계 질서에 중단 현상이 있었고, 예컨대 송 왕조는 북 중국을 점령한 야만족들을 동격으로 대하는 현실적이고 유연한 전략을 채택할 수 밖에 없었다」며 아주 조심스럽게 이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렇게 소극적으로나마 거론되는 역사적 사실은 아예 사소한 예외적 현상으로 무시된다.<sup>2</sup>

좀 객관성이 있어 보인다는 “유목민족 대 정주-농경 한족”이라는 양극 접근법은 「유목 민들이 정주-농경 한족들로부터 공물(貢物), 특혜적 국경 무역, 혹은 왕실간 혼인을 통한 지참금의 형식으로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곡물과 직물 등 생활 필수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국을 침략하여 그들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약탈해 갔으나, 한족들이 순수히 생필품들을 유목민에게 제공을 해 주면 평화가 유지되었다」는

<sup>1</sup> 시노-티베탄(漢藏語系) 계통의 언어를 사용하는 소위 화하족(華夏族)은 신석기 앙소(仰韶) 문화 (기원전 5000-3000) 원시 사회로부터 시작하여 청동기 전기에 속하는 상(商 1600-1300/盤庚遷殷/殷 1300-1046 BCE) 시대 중반까지 형성되었거나, 아니면 기원전 2200-771년의 청동기 중에 하-은-서주(西周 기원전 1046-771)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형성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화하족을 주체로 진(秦 기원전 221-207)에 이어 전한, 후한(前後漢 기원전 206-기원후 220) 등의 통일 국가들이 연이어 수립되면서, 한족(漢族)이라는 명칭이 화하족이라는 명칭을 대신하게 되었다.

<sup>2</sup> Rossabi, et al. (1983: 1-12) 참고.

식으로 얘기를 엮어 간다.<sup>3</sup>

현실을 무시하는 한족 중심 이념적 사고의 틀 속에는 중국 “주변의 야만인”이나 “북방의 유목민”은 추상적으로나마 존재하지만, “만주”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저 중국의 “동북” 변방일 뿐이다. 하지만 우리는 만주 대륙을 동아시아 제국(帝國)들의 흥망성쇠를 결정했던 핵심 지역의 하나로 그 본질적인 개념을 정립해야만 할 근거가 되는 역사적 사실을 아주 쉽게 제시할 수 있다.

### 왜곡의 핵: 역사가들이 무시 해 온 만주족 정복왕조

중국의 사서들을 보면, 대흥안령(大興安嶺) 동쪽의 소위 “야만인”들을 크게 둘로 나누어, 서부 만주 요서(遼西) 초원지역의 오환(烏丸), 선비(鮮卑) 부족 등을 동호(東胡)라 불렀고, 중부와 동부 만주의 통구스족들을 모두 함께 동이(東夷)라 불렀다. 오환 부족은 3세기 이후 역사에서 사라지고, 동호라 하면 주로 모용-탁발-거란 등 선비 부족들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들 언어는 소위 알타이어의 몽골 계통에 속한다. 동이는 고조선, 부여, 고구려, 삼한 등을 세운 예맥(濊貊) 통구스와 숙신(肅慎)-음루(挹婁)의 후예로서 핵심 만주족의 선조인 말갈(靺鞨)-여진(女眞) 통구스로 나뉘며, 이들 “동이족”의 언어는 (알타이어의) 범-통구스 계통에 속한다. [A.1.1.-A.1.3.]

중국 대륙을 정복한 이민족 왕조가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원(元 1206-1368) 제국 하나만 몽골초원으로부터 내려왔고, 나머지 4개는 만주에서 왔다는 아주 간단한 역사적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다. 즉, 탁발선비 북위(拓拔鮮卑 北魏 386-534)와 거란 선비 요(契丹鮮卑 遼 907-1125)는 모두 서부 만주 초원지역 출신인 동호-선비(東胡鮮卑) 족들이 세운 나라들이고, 금(金 1115-1234)과 청(淸 1616-1912)은 모두 동부 만주 삼림지역 출신인 여진-만주족이 세운 나라들이다. 후대에 끼친 영향력 이란 측면에서 보면, 서부 만주 출신 명단에다 352년에 북 중국을 차지해 잠시나마 정복왕조를 한번 실현해 보인 단명의 모용선비 전연(慕容鮮卑 前燕 337-70)도 추가시킬

<sup>3</sup> “유목 민족들이 한족과 명목상의 조공 관계를 받아들이는가 혹은 쳐들어가 약탈을 할 것인가는 유목민과 한족 간의 상대적인 힘의 크기; 초원지역의 기후 변화와 전염병이 그들 가축들에게 미친 영향; 각 조정 내부 세력권의 움직임; 양측의 정치적-심리적 동기; 국경지방의 혼란상; 국경 지역에 배치된 중국 관료들의 부패상; 등등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Jagchid and Symons (1989: 14) 인용. 유럽과 미국 대학의 저학년 역사 교과서들은 대부분 비 한족의 존재를 아예 무시하는 왕조-주기 (dynastic cycle) 허구적 모델(fiction)을 가르치고 있다. Hansen (2000) 참조.

수 있을 것이다.<sup>4</sup> 중국은 한번도 남쪽으로부터 정복 된 적이 없다.

구당서에 의하면 징기스칸(b.1162/7)의 몽골족은 거란(契丹)족의 별종인 실위-몽골(蒙兀) 부족에 속한다. 북사(北史)에 의하면 거란족은 서부 만주 우문선비(宇文鮮卑)족의 후예다.<sup>5</sup> 10세기 초, 요(遼) 시조 야율아보기의 공격을 받은 실위-몽골 부족은 북부 만주嫩江-흑룡강(望建河/完水/混同江) 주변 삼림지역에서 아르군강 동쪽 초원으로 이주했고, 11세기에 와서 오논-케룰렌 강 유역에 정착해 전업 유목민 생활을 하게 되었다.<sup>6</sup> 따라서 아주 그 근본을 따진다면, 징기스칸(r.1206-27)의 몽골 부족은 서 만주 몽골선비(蒙兀鮮卑)족이라고 부를 수 있다. 무슨 큰 비밀도 아니지만,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지극히 소수에 속한다. 분명한 것은 중국 역사에 등장하는 정복왕조 모두가

<sup>4</sup> 5개 혹은 6개의 정복왕조 명단에서 제외된 단명의 흉노-돌궐 왕조들이 있다. 소위 5호16국 시대(304-439)를 촉발한 흉노 유연(劉淵 r.304-10)은 304년에 한왕(漢王)이라 칭하고, 308년에 제위에 올라 다음해 평양(平陽)으로 수도를 옮겨 서진(265-316) 조정의 북사판을 수립했다. 유연의 아들 유충(聰 r.310-18)은 311년에 낙양에서 서진 황제를 생포했다. 고아로 유연이 키운 친척 조카 유요(曜 r.319-29)는 319년에 조(趙) 황제라 칭하고 수도를 창안으로 옮겼다. 유연의 부하이었던 석륵(石勒 r.319-33)은 319년에 양국(襄國)을 수도로 후조를 세우고, 329년에 전조를 정복했다. 제위를 빼앗은 석륵의 사촌 석호(石虎 r.334-49)는 335년에 수도를 업(鄴)으로 옮겼다. 석호는 349년 4월에 죽었고, 석호가 양자로 삼았던 서진 한족 유랑민(乞活) 출신 염민(冉閔)이 흉노족 20만 여명을 몰살시키고 350년 1월에 위(魏)를 세웠으나 352년 4월에 모용준에게 정복되었다. 소위 5대10국(907-60) 당시 초단명의 후당(923-36), 후진(936-46), 후한(947-50) 등을 세운 사타돌궐(沙陀突厥)은 친위군대를 지나치게 한족으로 충원하다가 한족 후주(951-60)에 이어 한족 송(960-1127-1279)의 등장을 초래했다.

<sup>5</sup> 서 만주 샤라무렌(Xilamulun) 강 주변 초원지역에 살고 있던 우문 선비족은 345년에 모용 선비족한테 정복되면서 실위(失韋)-해(奚)-거란(契丹) 등 3개의 부족으로 갈라졌다. Allsen (1994: 329), Twitchett and Tietze (1994: 44-8) 참조.

魏書 卷一百 列傳第八十八 失韋國...語與庫莫奚契丹豆莫婁國同...庫莫奚國之先 東部宇文之別種也 ...契丹國 在庫莫奚東 異種同類

舊唐書 卷一百九十九下 列傳 北狄 室韋者契丹之別類...東至黑水靺鞨 西至突厥 南接契丹...大室韋部落...傍望建河居 其河源出突厥東北界...又東經蒙兀室韋之北...忽汗河合 又東經南黑水靺鞨之北...東流注于海 唐書 卷二百一十九下 列傳 北狄 契丹 本東胡種...室韋 契丹別種 東胡之北邊...大室韋... 河南有蒙瓦部...水東合...忽汗河又東貫黑水靺鞨

北史 卷九十四 列傳 第八十二 奚本曰庫莫奚 其先東部胡宇文之別種也...契丹國...與庫莫奚 異種同類 並為慕容晃所破

<sup>6</sup> Xu (2005: 173-8, 183), Drompp (2005: 200-1), Janhunen (1996: 163) 참조. Ratchnevsky(1991: 6)에 의하면, 징기스칸의 부친 세대가 바이칼 호수 남쪽의 오르곤 강 주변으로 이주했을 때 까지만 해도 징기스칸 일족을 “산림족(hoi-yin irgen, forest tribe)”이라고 비하 해 불렀다.

만주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A.1.4.]

초기의 정복왕조들은 북 중국 만을 정복-통치 했지만 당시는 북 중국이 바로 중국을 의미 했고, 남 중국은 미개한 변방 오지의 성격이 강했다. 피난을 내려온 한족 엘리트(僑民/客家)에 의해 남 중국이 오늘 날의 중국과 같이 개발 되자 몽골-원과 만주-청은 중국대륙 전체를 정복 해 버린 것이다.

### Motivational Episodes

주서(周書)를 본다. 서위-북주를 세운 우문태(宇文泰)는 몽골초원 유연(柔然)의 침략을 막기 위해 탁발선비(拓跋鮮卑) 북위(北魏: 386-534)가 구축한 최전방 육진(六鎮) 중 하나인 무천진(武川鎮) 출신이었다. 우문태 씨족의 시조인 갈오토(葛烏菟)는 선비족들의 추앙을 받아 12개 부락의 추장으로 추대되었고, 대를 이어 대인(大人) 노릇을 했다. 당시 하늘을 우(宇)라 했고, 임금을 문(文)이라 칭했기 때문에 성씨를 우문이라 하고 나라 이름을 우문국(宇文國)이라 칭했다. 우문선비족은 얼마 후, 남쪽으로 옮겨 요서지역에 정착했다. 9세손이 모용항(慕容皝)에게 정복 당해 모용선비 전연(前燕: 386-534)을 섬기기 시작했고, 10세손은 전연의 부마도위 현도공에 봉해졌다. 북위의 도무제(道武帝 r.386-409)가 후연(386-397-407)의 모용보(r.396-8)를 격파하고 중원에서 몰아내자 모용씨를 모시던 10세손은 기병 500명을 인솔하고 북위에 귀순하여 도목주(都牧主)에 임명 되었고, 398-403 기간 중, 무천에 정착 하게 되었다

526년, 우문태는 북위 효장제(孝莊帝 r.528-30) 즉위에 공을 세워 진원(鎭遠) 장군이 되었다. 다음 해, 관롱(關中隴右) 지역의 반란을 평정한 공으로 정서(征西) 장군 광록대부(光祿大夫)에 봉해졌다. 534년 7월, (동위/북제를 세운) 고환(高歡)에게 쫓겨난 북위의 마지막 황제(孝武帝 r.532-4)를 장안에 모시고, 황제의 누이 동생과 결혼하여 부마도위 승상으로 군국대사를 총괄했다. 12월에 효무제가 죽자, 북위 황족 중 문제(r.535-51)를 추대 해 서위(535-56)를 수립했다. 556년 10월, 52세의 나이로 서거했다. 문황제라 추존되고, 묘호를 (北周) 태조라 하였다. 북위 황족 폐제(r.551-4), 공제(r.554-6)는 물러 나고, 우문태의 장자가 북주 명제(明帝 r.557-60)가 된다.

구당서 후비(后妃) 열전의 기록을 본다. 당 고조 이연의 두(竇)황후는 일찍이 양견이 북주(北周 556-81) 정제(靜帝 r.580-1)를 제거하고 수 나라를 세워 황제가 되었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기를: "내가 남자로 태어나 우리 외삼촌 집안의 재난을 구하지

못한 것이 정말 한이 된다.” 놀란 그녀의 부친과 모친(襄陽長公主)은 꾸짖기를: “너는 그런 위험천만의 말을 함부로 해선 안 된다. 우리 일족이 멸문지화를 당할지도 모른다.” 이연의 태목황후 두씨의 부친은 북주 대사마 두의(竇毅)이며, 모친은 우문태의 차남인 북주 무제(武帝 r.560-78)의 누님 양양장공주이었다. 서위-북주를 세운 우문태의 맏아들은 북주 명제, 맏딸은 양양장공주, 둘째 아들은 북주 무제이었다. 두황후는 외삼촌인 무제가 애지중지하며 궁중에서 키웠다. 당시 어린 나이의 두황후는 삼촌이 (568년에 시집온) 돌궐 카간의 딸인 아사나(阿史那) 황후를 냉대하는 것을 보고, “관동의 북제(齊 550-77)와 강남의 진(陳 557-89)을 평정 하지 못한 현 상황에서는 [茹茹(柔然)를 멸하고 수십만의 기마 궁수를 거느리는] 돌궐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니 만백성을 위해서라도 돌궐 부인을 따듯하게 대해주어야 한다”고 충고를 했다. 무제는 깊이 반성하며 그녀의 충고를 따랐다 한다.

북주 무제의 아들 선제(宣帝 r.578-80)는 양견의 맏사위다. 사위가 급사 하고, 그의 8살 난 (朱后) 아들이 즉위하자 양견은 581년에 우문태의 증손자인 정제를 제거하고 제위를 찬탈했던 것이다. 정제는 양견의 딸(楊后)이 낳지 않았다.

우문태의 외손녀인 두황후는 617년에 남편 이연과 19세인 아들 이세민이 3만의 군대를 이끌고 태원을 출발해 우문씨 집안의 원수를 갚고 당(唐) 왕조를 수립하는 쾌거를 보지 못하고 45세의 나이로 서거했지만, 그녀의 딸 평양(平陽)공주는 관중(關中)에서 자신이 직접 모집한 만여 정병(娘子軍)을 거느리고 이세민과 함께 활약을 해 “남자로 태어나지 못한 것”을 한탄했던 모친의 한을 풀어주었다.

### 한족 제국으로 왜곡된 수와 당: 서만주 선비족 정복왕조의 후계자

탁발선비 북위는 534년에 고환(高歡)의 동위(534-50)와 우문태(宇文泰)의 서위(535-56)로 갈라졌다.<sup>7</sup> 동위는 북제(550-77)가 된다. 선비 전통이 가장 강했다고 흔히들

<sup>7</sup> 周書 卷一 帝紀第一 文帝上 太祖文皇帝 姓宇文氏 諱泰...代郡武川人...鮮卑慕之奉 以爲主... 其俗謂天曰宇 謂君曰文 因號宇文國并以爲氏焉...自陰山南徙始居遼西...爲慕容暉所滅...仕燕...封玄菟公...寶敗...歸魏...遷武川

고환은 발해 사람으로, 6대조가 서진 때 현도 태수를 지냈고, 그 후손들이 선비 왕조를 섬기게 되었다. 집안이 대대로 북변에 살다 보니 선비족에 완전히 동화되었다 한다.

北齊書 卷一 帝紀第一 神武上 姓高名歡...渤海蓀人也 六世祖...晉玄菟太守...生...三世仕慕容 氏 及慕容

말하는 서위는 557년에 북주(557-81)가 되어, 577년에 북제를 정복하고, 579년에 진(陳)의 강북 땅을 차지해, 짧은 기간 동안이나마 북 중국을 재 통일할 수 있었다. 수(581-618) 나라는 선비족 북주의 후계자로서 천하를 통일했고, 당(618-907)은 단명의 수 나라를 승계한 것이다.

수 나라를 세운 양견(楊堅)은, 북위-서위-북주 (386-535-57-81) 등 선비 정복 왕조에서 6대에 걸쳐 태수와 장군 노릇을 한 관릉(關中隴右/陝西,甘肅) 핵심 선비 지배 씨족 출신 이었다. 수서는 양견의 조상이 후한의 태위 벼슬을 한 양진(震)에서 비롯한다고 말하지만, 양진의 8대 손으로 모용선비 전연의 북평 태수를 지낸 양현(鉉) 이전으로 올라가면 구체적인 기록이 전혀 없다.<sup>8</sup> 양현의 아들이며 양견의 5대조인 양원수(元壽)는 무천진(武川鎭)에 자리를 잡고 탁발선비 정복왕조를 섬기기 시작했다. 4대조와 3대조는 북위의 태수였고,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북위의 장군이었다. 양견의 아내인 문헌황후는 무천진 독고신(信)의 딸이다. 독고신은 무천진의 우문태(507-56)를 섬기며, 서위를 세우고, 후에 북주를 창건하는데 큰 공을 세운 8주국(八柱國)의 일원이었다. 독고신의 맏딸은 우문태의 장자로 북주의 첫 번째 황제가 된 명제(明帝 r.557-60)와 결혼을 했고, 일곱 번째 딸은 수 문제 (r.581-604) 양견과 결혼을 했고, 넷째 딸은 당 고조 이연의 아버지(李昞)와 결혼을 하였다.<sup>9</sup> 독고신 휘하의 대장군 양충은 우문태에 의해 수국공(隋國公)에 봉해졌다. 양견은 부친 양충의 칭호를 물려 받아 후에 자신이 세운 나라의 이름으로 삼았다. 양견은 사위인 북주 선제(r.578-80)가 죽자, 8살에 제위를 승계한 정제와 우문씨 친족을 죽여버리고 581년에 수 나라를 세웠다. 양견의 집안은

寶 敗...率衆歸魏 爲右將軍...生...坐法徙居懷朔鎭...生皇考...既累世北邊 故習其俗 遂同鮮卑

<sup>8</sup> 隋書 卷一 帝紀第一 高祖上 高祖文皇帝...漢太尉震八代孫鉉...仕燕爲北平太守 鉉生元壽 後魏代爲武川鎭司馬...元壽生太原太守惠嘏 嘏生平原太守烈 烈生寧遠將軍禎 禎生忠 忠卽皇考也 皇考從周太祖...位至 柱國...隋國公

<sup>9</sup> Twitchett (1979: 63-4, 151) 참조.

周書 卷十六 列傳 第八 獨孤信...其先者...爲部落大人 與魏俱起 祖...和平中...自雲中 鎭武川 因家焉 父...爲領民酋長...建明初...信爲大都督...信與太祖鄉里 少相友...信長女 周明敬后 第四女 元貞皇后 第七女 隋文 獻后 周隋及皇家 三代皆爲外戚

舊唐書 卷一 本紀第一 高祖...姓李氏諱淵...皇祖諱虎...與周文帝及...大司馬 獨孤信等...稱爲 八柱國家...追封唐國公...皇考諱昞[北]周安州總管...襲唐國公...追尊元皇帝...高祖七歲襲唐國公...文帝獨孤皇后 卽高祖從母也

北史 卷六十 列傳第四十八 王雄...開國公李虎...柱國大將軍...開國公獨孤信...與周文帝 [宇文 泰] 爲八柱國... 開國公楊忠 是爲十二大將軍

선비 정복왕조 지배계급의 핵심 씨족에 속한 것이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설사 양씨 집안이 한족 조상을 가졌다 해도, 모용선비 전연이 370년에 멸망하기 이전 (즉 楊震의 8대손이 전연의 북평태수가 된) 언젠가부터 선비어를 말하기 시작했을 것이고, 양견이 수 나라를 세운 581년까지 최소한 211년간 선비 말을 하면서 살았을 것이다.

당 고조 이연(r.618-26)의 7대조는 이호(李暹 r.400-17)라 한다. 말인즉 흉노 부족이 오늘날 감숙성 지역에 북량(397-439)을 수립하자, 이호가 훨씬 서쪽에 위치한 둔황 지역으로 가 서량(400-21)을 세웠다 한다. 북량은 421년에 서량을 병탄했고, 북위는 439년에 북량을 정복해 북 중국 통일을 완성한다. 역사가들은 이호를 한족으로, 5호16국의 하나인 서량을 한족 국가로 분류하면서, 이연을 한족으로 간주한다.

이연의 모친과 수 양제의 모친은 자매 사이였다. 이연은 외삼촌인 수 문제의 각별한 총애를 받았으며, 양제의 사촌으로, 당시 가장 세력이 큰 수 나라 장수들 중의 하나이었다. 이연의 5대조는 북위의 흉농 태수, 4대조와 3대조는 무천(武川)에 정착한 북위의 장수이었다. 이연의 할아버지 이호(虎)는 우문태가 서위/북주를 창건하는데 큰 공을 세운 개국공신 8주국(八柱國) 중 한 명으로, 당국공(唐國公)에 봉해졌다. 이연의 부친(昞)은 독고신의 넷째 딸과 결혼을 했다. 이연의 장인은 북주 대사마 두의 이였고, 장모는 북주 무제의 누님인 양양장공주(襄陽長公主)이었다.<sup>10</sup> 이연의 처는 바로 우문태의 외손녀이었으며, 그녀는 외삼촌이며 우문태의 차남인 북주 무제(r.560-78)의 궁중에서 자랐었고, 이연과 결혼하여 이세민을 낳았다.<sup>11</sup> 이연은 당국공 칭호를 물려 받아 후에 자신이 세운 나라의 이름으로 삼았다. 이연은 양견과 마찬가지로 선비 정복왕조의 핵심 지배씨족 출신인 것이다.

<sup>10</sup> 舊唐書 卷一 本紀第一 高祖...姓李氏諱淵 其先隴西狄道人 [西]涼武昭王暹 七代孫 暹生歆 [r.417-20] 歆生重耳 仕魏爲弘農太守 重耳生熙爲...鎮將...鎮武川因家焉 熙生天錫 仕魏爲 幢主 皇祖諱虎 後魏左僕射...與周文帝及...稱爲八柱國家...追封唐國公...皇考諱昞 周安州摠 管柱國大將軍 襲唐國公...追尊元皇帝高祖...七歲襲唐國公

舊唐書 卷五十一 列傳第一 后妃上 高祖...皇后竇氏...隋定州總管...之女也 后母周武 帝姊... 養於宮中

<sup>11</sup> 우문태의 외손녀를 모친으로 태어난 당 태종 이세민은 “몸소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참여했고, 타고 있던 말이 네 마리나 죽었다. 그는 말들의 죽음을 애통이 여겨, 그들의 석상을 만든 다음, 화살을 몇 개나 맞았고 부상이 어땠는가 뿐만 아니라, 그 말들 하나 하나의 신체적 특징을 세밀하게 기록했다. 말과 전쟁에 대해 이렇게 세세한 관심을 갖는 것은 유목민 지도자들의 특징이었다.” Barfield (1989: 141) 인용.

우문태의 외손녀를 모친으로 태어난 당 태종 이세민의 부인 역시 북위-북주 탁발선비 정복왕조 핵심 씨족의 딸이었다. 이연의 부친 이병을 100% 한족으로 간주하는 Ho(1998: 131)는 이세민의 유전자 75%가 선비족의 것이라고 말한다. 고종의 모친인 태종 이세민의 문덕황후 장손씨는 수 우효위장군(右驍衛將軍) 장손성(長孫晟)의 딸이다. 성(晟)의 부친은 북주의 의동삼사(儀同三司) 웅강이주자사(熊絳二州刺史) 평원후(平原侯) 이었고, 조부는 북위 태상경(太常卿) 기주자사(冀州刺史) 이었다. 당시 열전은 문덕황후 장손씨의 선조가 북위 탁발씨이며 종실의 장이라고 기록 했다. 북위서는 장손성의 5대조인 장손승이 탁발규(珪 r.386-409)의 부친 탁발십익건(什翼犍 r.338-76) 당시 탁발족의 남부대인(南部大人)이 되었다 한다. 자치통감에 의하면 탁발규가 북위를 세운 직후 탁발부족을 북부와 남부로 나누어 문덕황후의 6대조인 장손승을 남부대인으로 삼았다 한다.<sup>12</sup> Ho식으로 생각한다면 당 고종의 유전자는 87.5%만 선비족의 것이다. 고종의 부인이 된 측천무후(則天武后)는 북위 때 탁발 선비족 본거지이었던 병주의 문수(并州文水) 사람으로 태원유수(太原留守)가 되어 이연의 의거를 적극 도운 무사환(武士護)의 딸이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설사 이연 집안이 한족 조상을 가졌다 해도, 탁발 선비가 북 중국을 통일한 439년 이후 (즉,李勣의 손자가 북위 흥농태수가 된) 언제 인가부터 선비어를 말하기 시작했을 것이고, 이연이 당 나라를 세운 618년까지는 이미 179년 가까이 선비 말을 하면서 살았을 것이다. 북주는 고사하고 한족 국가로 간주해도 된다고 흔히들 말하는 북제 조정의 언어 역시 선비어 이었다. 따라서 무천진(武川鎭) 출신 우문태가 세운 북주를 승계한 (무천진 출신) 양견이나 이연이 한족이라는 것은, 북위-서위-북주가 탁발선비 정복국가가 아니고 한족 국가라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317년, 한족 서진(265-316)이 흉노족에 멸망 당하고, 살아 남은 왕공 사족을

<sup>12</sup> 舊唐書 卷五十一 列傳 第一 后妃上 太宗..皇后長孫氏 長安人 隋右驍衛將軍晟之女也  
唐書 卷七十六 列傳 第一 后妃上 太宗..皇后長孫氏 河南洛陽人 其先魏拓跋氏...宗室長  
資治通鑑 卷一百四十 齊紀六 明帝 建武三年 [496] 改拓跋氏爲長孫氏  
魏書 卷二十五 列傳 第十三 長孫嵩代人也...父仁 昭成時爲南部大人...長孫道生 嵩從子也...子抗...子名稚  
資治通鑑 卷一百六 晉紀二十八 太元十年 [385]...珪母賀氏... 故南部大人長孫嵩 師所部七百餘家...歸珪  
太元十一年 拓跋珪...卽代王位...以長孫嵩爲南部大人...爲北部大人 分治其衆...長孫道生...侍從左右 出納教  
命...道生嵩之從子也  
隋書 卷五十一 列傳 第十六 長孫覽 祖稚 魏太史...武帝...卽位...從平齊...進位上柱國大司徒 從子熾 熾弟  
晟 祖...魏太常卿 冀州刺史 父...周開府 儀同三司 熊絳二州刺史 平原侯



위시해 100여 만의 한족이 강남으로 피난을 해 동진(317-420)을 수립했다. Ledyard (1983: 331)는 “317년” 을,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중국 역사상 하나의 분기점으로 이해한다. 중국 대륙의 핵심 지역인 중원이 이민족에 의해 최초로 점령된 역사적 전환점이 바로 317년 이라는 것이다. 당시 남 중국은 한족들이 식민 정착을 대규모로 단행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쌀이 대량으로 생산된다는 경제적 이점을 제외하면, 사회-문화적으로 북 중국과 전혀 비교를 할 수 없이 낙후된 미개척 변방 오지이었다. 북에서 도망을 해 온 교민(僑民) 집단인 남조의 지배 씨족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진정한 한족 문화 전통의 후계자라고 믿었다. 만족 토호(蠻族土豪) 장수가 남조의 마지막인 진(陳 557-89) 나라를 세우게 되지만, 사학자들은 게르만 민족 대이동의 결과 황폐화된 로마를 콘스탄티노플이 대신했던 것처럼, 건강(建康/남경)은 “한족 왕조인” 수가 천하를 통일 하는 589년까지 북 중국의 장안과 낙양의 역할을 대신 했다고 말한다.

#### Motivational Episodes: 정복왕조 조정의 공식언어 (Bilingual Rulers)

흔히들 우문태(宇文泰)의 서위-북주(535-556-581)는 순혈 선비족 왕조로 보아야 하지만, 고환(高歡)의 동위-북제(534-550-577)는 한화(漢化)가 심했기 때문에 한족 왕조로 간주해도 무리가 없다고 들 말한다. 다음은 안지추(顏之推 d.591)의 안씨가훈(顏氏家訓)에 나오는 얘기다.

『제(齊) 조정의 사대부(士大夫) 하나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게 자식이 하나 있는데 나이가 열일곱 살이다. 공문서 작성에 재능이 있어(顏曉書疏), 나는 그에게 선비 말(鮮卑語)과 비파(琵琶) 연주를 가르치고 있다. 이를 통달해 [稍欲通解 벼슬을 얻고 선비족] 공경(以此伏事公卿)들을 섬길 수 있게 만들려 한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런 방법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려 한다니!』

당시 북중국 한족(漢族)들이 학문 자체는 도외시하고 오로지 조정의 공용어인 선비 말과 선비족이 즐기는 비파 연주를 배워 벼슬을 구하는 세태를 개탄한 것이다. 물론 고환을 비롯한 선비 지배층은 선비어와 중국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었다. 자치통감 기록에 의하면: 『당시 선비족은 한족을 경시했지만 오직 [용맹무쌍한 한족 장수] 고오조만을 두려워했다. 고환도 장수와 사졸들에게 항상 선비어로 명령을 내리지만 (號令將士常鮮卑語) 고오조가 대열에 있을 경우에는 중국말로 호령을 했다 (爲之華言).』

청 나라 때, 전시(殿試)에서 뛰어난 성적으로 합격해 한림원 편수(翰林院編修)에

임명된 한족 진사들은 1647년 이래 만주어를 배워야 했다. 1748년, 건륭제(乾隆帝)가 (1745년) 전시에서 수석과 차석으로 한림원 편수가 된 전유성(錢維城)과 장존여(莊存與)의 만주어 학습이 게으르다고 책망을 한 기록이 있다. 한족 한림원 편수들에게 실시하던 만주어 시험문제들은 UCLA 도서관에 보존되어 있다.

대다수의 요동 출신 한군 팔기병은 만주어와 중국어를 모두 구사했기 때문에 청 정복 초기에 대거 중앙 관료로 임용되었다. 특히 강희제는 지방의 (정2품) 총독과 (종2품) 순무(巡撫)에 한군팔기(漢軍八旗)를 대거 등용 하였다. 요동 지역의 한족 정착민 후예들이 사용하는 중국어 방언, 즉 만주족 귀에 익은 요동한족 팔기군의 언어가, 청조 지배자들에 의해 북경으로 반입되어, 한족을 다스리는 정복왕조 관리들이 사용하는 언어(北京官話)가 되었고, 중앙 관료로 출세할 꿈을 가지고 진사시험을 준비하는 전 중국대륙 한족 지식계급의 필수 공용어가 되는 과정을 거쳐 현대 중국의 공식 상용어가 된 것이다.

유라시아 대륙에 퍼져있던 터기(突厥)족들을 포섭해 대제국을 건설한 몽골 제국의 공식언어는 물론 몽골어 이었다. 하지만 터기족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서 아시아에서는 조정의 공식 언어가 몽골어에서 터키어로 완전히 바뀌는데, 당(唐) 조정의 언어가 선비어에서 중국어로 바뀌는 것처럼, 도대체 언제부터 바뀌었는지 아무도 모른다. 이런 사실은 공식적으로 기록할 사안이 아니었던 것 같다.

### 중국 역사: 이민족 지배가 단 두 번 한족 제국의 등장으로 중단되었던 역사

당이 멸망한지 220년 후인 "1127년," 애당초 북경 주변을 포기했던 한족 송 왕조는 다시 회수(淮水) 아래로 밀려 난다. 중원을 내어주고 정복왕조와의 국경선이 양자강 유역으로까지 계속 밀려 내려가게 된 한족들은, 역사 왜곡의 길을 택하지 않는 한, 중화(中原華夏)를 내세우기가 힘들게 되었다. 사학자들은 화하(華夏)-만이(蠻夷)라는 문화적-민족적 대칭 구조를 만들기 위해, 수-당을 (선비 정복왕조의 직계 후예가 아니라) 진-한(秦漢)에 필적하는 한족 제국의 귀감으로 만들어야만 했다.

수-당의 성격 구명이 아주 중요한 이유는, 언젠가 수-당을 사학계에서 탁발 선비 정복왕조인 북위-서위-북주의 직계로 분류하는 날이 오게 되면, 지난 2천년 간의 한족 제국의 역사란 것이 (소위 한족에 매년 즉시 흡수 동화되었다는) 이민족에게

간헐적으로 정복 당한 역사가 아니라, (각자 고유의 전통을 고수하려던) 이민족 지배가 단 두 번 한족 제국의 등장으로 중단되었던 역사가 되는 것이다. 후한이 220년에 멸망한 이후 청조가 멸망하는 1911년 까지, 제대로 된 한족 제국 이란 송(960-1127-1279)과 명(1368-1644)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나마 송은 중국 대륙 남쪽으로 밀려나 북 중국을 차지한 요와 금 조정에 "칭신(稱臣)-조공(朝貢)"을 하며 살았었다.<sup>13</sup>

<sup>13</sup> 遼史 卷十四 本紀第十四 聖宗五 統和二十二年 [1004] “南伐...宋遣...請和 以太后爲叔母 願歲輸銀十萬兩 絹二十萬匹” 卷十九 本紀第十九 興宗二 重熙十一年 [1042] “宋遣富弼...宋歲增銀絹十萬兩匹 文書稱貢”

金史 卷四 本紀第四 熙宗 皇統二年 [1142] “歲幣銀絹二十五萬兩匹 畫淮爲界 四月...以臣宋告中外”

金史 卷七十七 列傳第十五 宗弼...皇統二年 [1142] “宋主遣...曰臣構言...淮水中流爲界...世世子孫 謹守臣節...歲貢”

金史 卷六 本紀第六 世宗上 大定五年 [1165] “宋...以國書來...稱姪宋皇帝 稱名再拜奉書于叔大金皇帝”

## Appendix 1. 홍산 문화와 『선비-통구스』 알타이 언어 공동체

### A.1.1. 원시 『선비-통구스』족의 본고장인 만주 대륙: 선비계, 예맥계, 말갈계

알타이 산맥을 넘어 바이칼호 주변에 정착했던 북 몽골로이드 종족의 일부가 대흥안령(大興安嶺) 산맥을 넘어 만주 땅에 들어와 원시 『선비-통구스』가 되었다. 그들 중 일부는 좀더 따뜻하고 습한 기후를 찾아 한반도 남쪽으로 내려와 쌀 농사를 지으며 살게 되었다. 한반도는 중부 만주가 바다를 향해 뻗어나간 형상이다.

만주 대륙은 서쪽으로 대흥안령 산맥, 칠노도(七老圖)-연산(燕山) 산맥 등을 경계로 몽골 고원과 분리된다. 샤라무렌(西拉木倫)-노합하(老哈河) 유역으로부터 서요하(西遼河) 유역에 이르는 목초지대는 대흥안령 산맥의 동쪽 기슭과 늘루얼후(努魯兒虎) 산맥에 의해 둘러 쌓여 있다. 이 서만주 요서(遼西) 초원지대가 바로 몽골 초원의 유목민과 유사한 생활을 했던 선비(鮮卑)족의 본고장이다.

송화강 유역의 평원지대는, 동쪽의 울창한 삼림을 바라보면서 시베리아 끝자락으로부터 한반도 북변 산악지대까지 내려가는 도중, 남서쪽의 요하(遼河) 유역 평원과 연결되어, 소위 동북(東北) 평원을 형성한다. 송화강-요하 유역의 중부 만주평원(=동북평원)과 훈강(渾江)-암록강-대동강 일대의 산악 지대는 바로 고조선과 부여, 고구려 등을 세운 예맥(濊貊) 통구스의 본고장이다. 이들은 수수를 심고 가축을 기르면서, 강 물고기를 잡고 사냥을 하여 단백질을 보충했다.

소 흥안령 산맥으로부터 장백 산맥으로 이어지는 동부 만주의 삼림지대는, 숙신(肅慎)-음루(挹婁)의 후예이며, 후에 만주족의 핵심이 되는 말갈(靺鞨)-여진(女眞) 통구스의 본향이다. 이들은 사냥과 채집에 크게 의존하면서 산속의 작은 밭 조각들을 가지고 농사를 지었다.<sup>14</sup>

### A.1.2. 홍산문화-하가점하층문화-하가점상층문화

한반도를 포함하는 범 만주 『선비-통구스』 역사-문화 공동체는 신석기 홍산(紅山 5000-3000 BCE) 문화를 공유하고, 빗살무늬 토기, 비파형 동검 등의 전통을 공유한다. 알타이 계통 언어권의 홍산 문화는 한장(漢藏) 언어권의 양소-용산 문화와 전혀 다르다. 홍산 문화의 유적은 요서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홍산 문화는 황하(黃河) 중류와 위수(渭水) 유역의 양소(仰韶 5000-3000 BCE) 문화와, 황하 하류 유역의 용산(龍山 3000-2200 BCE) 문화를 일으킨 종족들과는 전혀 다른 종족들이 이룩한 문화이다.<sup>15</sup>

<sup>14</sup> 만주의 중부 평야와 동부 산림지역에 살던 이른바 동이(東夷) 족들은 돼지 고기를 먹었다. 돌궐 말로 돼지를 “통구즈”라 부른다는 사실을 근거로 “통구스”의 어원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Janhunen(1996: 221)에 의하면, 이는 언어학적 타당성이 결여된 접근 방법이다.

<sup>15</sup> 홍산 문화의 영역은, 북으로는 샤라무렌 강을 넘어 몽골 고원에 이른다. 동쪽으로는 요하의 하류, 그리고 남으로는 발해만에 이르고, 서쪽으로는 연산산맥을 넘어간다. 홍산 문화의 전형적인 유적지

홍산 문화의 유물로는 각종 의례용 도구를 비롯하여, 점토로 빚은 인체 조형물, 옥으로 만든 동물 형상, 염료를 칠한 통형관(筒形管) 등이 발견되었다. 쟁기를 사용하는 농경 전통과 양과 돼지를 포함해 가축들을 길렀다는 증거도 보이며, 수수를 수확할 때 쓰는 조개로 만든 칼 등이 발견된다. 이 지역 사람들은 수수를 심고, 가축을 기르고, 사슴을 사냥하며 살았다. 땅을 파고 지은 수혈식(竪穴式) 움집과 함께 저장고, 불을 때는 화로 등도 발견된다. "Z"자 모양의 문양, 빗살 문양, 칼끝으로 판 문양 등으로 장식된 적색 혹은 회색의 (회전판 위에서 완성된) 사질성(沙質性) 토기와, 채색 토기, 및 토기 제조용 가마도 발견된다. 뿐만 아니라, 종교 의식과 제사를 행했던 공공 건물 흔적이 발견되는데, 이를 보면 사회적으로 계층 분화가 이루어진 복잡한 사회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중국 본토 유적의 조각품들을 보면 다분히 추상적으로 정형화 되었지만, 홍산 문화의 조각품들은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 모양을 하고 있다. 홍산, 사해(査海), 신탁(新樂) 문화의 산물인 즐문(櫛紋) 토기는 한반도의 빗살 무늬 토기와 유사하며, 중국 본토의 신석기 토기 형태와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sup>16</sup>

즐문(櫛紋)-인각(印刻) 문양 토기를 사용하는 홍산 문화는 반지, 칼, 등과 같은 소형 동제품을 사용하는 초기 청동기 하가점(夏家店) 하층(下層) 문화(2200-1600 BCE)로 이어진다.<sup>17</sup>

사기(史記)에 의하면, 기원전 1045년, 서주(西周 c.1046-771 BCE)의 무왕(武王)이 자신의 이복 동생인 소공(召公)에게 북연(北燕)이라고 부르는 지역을 봉해주었다.<sup>18</sup> 그런데 고대의 연나라는 애당초 중국적인 요소를 갖고 있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중국 고고학회 상임 이사장을 역임한 광대순은 서주-동주 시대 연나라(燕 c.1045-222 BCE) 문화의 근원을 하가점 하층 문화에서 찾았으며, 궁극적으로는 홍산 문화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광대순에 의하면 하가점 하층 문화의 일부는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상(商/殷 c.1600-1046 BCE) 문화로 이어졌고, 일부는 그 자리에 남아 연나라 문화의 기반이 되었다.<sup>19</sup> 즉, 하가점 하층 문화를 연(燕) 문화의 전 단계로 이해한다면, 실제 역사적 사실에 가까워진다는 것이다. 하가점 하층의 채색토기에 그려진 동물 가면 문양은, 그 출현 시점이 매우 이르고, 상당히 발전된 형태 이었다. 상나라 도철(饕餮-전설상의 흉악하고 탐식하는 야수) 문양의 근원이 된 이 괴물 문양의 전통은, 전국시대 말기인 기원전 300년경까지 연나라에 보존되었었다. 서주 시대의 연나라는, 주나라와는 크게 다른 자신만의 독특한 문화를 보유하고 있었다. 광대순은, 하가점 하층문화 유적에서 출토된 신탁(神託) 갑골(甲骨)에 이미 연(燕)이라는

는 주로 노합하(老哈河) 주변, 적봉(赤峯)시 교외의 영금(英金)강 계곡, 샤라무렌 강 유역 등에 위치한다. Nelson (1995: 14, 25) 참조.

<sup>16</sup> Barnes (1993: 109) 참조. 양소 문화 유적지에서는 홍산 문화의 특징인 여자의 입상과 전신(全身) 조각상, 제사 의식을 행하던 공동 신전(共同神殿) 등이 발견되지 않는다.

<sup>17</sup> 하가점 하층 문화는 바로 그 지역의 홍산 문화에서 유래한 것이며, 이는 잠시 중단되었다가 하가점 상층 문화로 이어진다. Nelson(1995: 148-9) 참조.

<sup>18</sup> 史記 卷三十四 燕召公世家 第四 周武王之滅紂 封召公於北燕 宋忠曰 有南燕 故云北燕

<sup>19</sup> 광대순(1995: 148-9, 178-9), Janhunen(1996: 224) 참조.

상형 문자가 새겨져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원시 연 나라는 상 나라 때 이미 존재해 있었고, 그 문화적 전통이 서주 시대의 연 나라에 이어져 보존 되었다고 주장한다.

유목민 생활 형태는 기원전 1000년경 알타이 산과 천산산맥 주변 지역에서 출현 하여 소위 알타익-스키타이 시대를 전개했다. 스키토-사이베리안 사람들의 초기 유목 문화는 (특히 기원전 6세기 이후에는) 장례 때 매장된 청동-철제 무기류, 기마용 도구, 동물 형상의 공예품, 금과 보석 등 부장품의 존재로 특징지어진다.<sup>20</sup> 이 새로 출현한 문화가 전파되면서, 하가점 하층 문화(2200-1600 BCE)가 본격적 청동기를 전개한 하가점 상층 문화(1200-600 BCE)로 전환되었다. 하가점 상층 유적지에서 발견된, 말을 탄 사람과 달리는 토끼를 그려 넣은 동제품이 동아시아에서의 기마전통 출현을 증명하는 최초의 물증이라고 생각된다. 서아시아의 스키타이 유물과 유사한 동물 문양의 청동 제품들이 발굴되는 것으로 보아, 하가점 상층문화는 유라시아 초원 지대와의 접촉을 통해 유목민들과 문화적 전통을 공유하게 된 것으로 추정한다. 하가점 상층문화는 요하 유역에 이르면서 유목민적 사회, 정착-농경 사회, 국가 수준의 사회 등, 다양한 요소들을 융합했고, 한반도로 전파되면서 『선비-통구스』 역사-문화 공동체 전역에 본격적인 청동기 시대를 전개했다는 것이다. 홍산 문화 시대에 이미 그 흔적을 보인 청동기가 (같은 지역의) 하가점 상층 문화 시기에 와서 아주 본격적으로 다양한 청동 제품들을 보여주게 된다.<sup>21</sup>

하가점 상층에서는 하층과 달리 민무늬 토기가 발견된다. 한반도를 비롯한 만주의 여타 지역에서는 민무늬 토기가 대략 기원전 2000년경부터 사용이 되었는데, 하가점 상층 문화는 뒤늦게 요하 유역 방향으로부터 민무늬 토기 사용자들의 영향을 받게 된 것 같다.<sup>22</sup>

Nelson(1995: 252, 14)에 의하면, 동북지역에서 청동제품이 상당히 일찍 발견 되는데, 특히 요서 지역에서 출토되는 청동 제품들이 중원의 양소 문화에서 유래된 것으로 볼 이유가 전혀 없으며, 상 나라 전성기 때에도 동북지역의 문화를 중원문화의 어설피고 야만적인 표절로 간주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Nelson은 홍산 문화는 중원의 문화와 분명히 다르며, 단지 그들이 문자가 없었다는 사실을 제외하고서는 중원 문화에 결코 뒤질 것이 없었다고 말한다.

청동으로 단검, 화살촉, 거울(銅鏡), 낚시 고리, 도끼 등을 만들던 거푸집과 종, (동물 형상) 혁대 고리, 단추, 마구류(馬具類), 마차의 장식품 등 기타 청동 제품들이 한반도 전역의 민 무늬토기 유적지에서 출토된다.<sup>23</sup> Nelson(1993: 133)은 “요녕식 (비파형) 동검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요동 반도와 발해만 연안에서 풍부하게 발견되지만, 만리장성 이남의 중국 본토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Barnes(1993: 162)는 “한반도에서의 청동기 시대 그 자체는 만주 유역으로부터 요녕식 동검이 진입 해 오는 것으로 정의된다”고 말한다. 한반도에서 풍부하게 발견되는 동검과

<sup>20</sup> Di Cosmo (2002: 32-43) 참조.

<sup>21</sup> Barnes (1993: 153, 157-8), Di Cosmo (1999, 926), (2002: 64) 참조.

<sup>22</sup> Nelson (1993: 113-6, 175-7), Barnes (1993: 160-1) 와 Di Cosmo (2002: 62) 참조.

<sup>23</sup> Nelson (1993: 137-8) 참조.

동경의 유래는 흔히 하가점 상층문화로 추적된다.<sup>24</sup>

만주 유역에서는 기원전 1500년경에 청동기 시대가 시작되고, 한반도에서는 기원전 1000년경에 시작된 것으로 믿어진다.<sup>25</sup> 기원전 1300년경까지는 요동과 요서 지역의 청동검들이 칼날과 손잡이가 분명하게 분리가 되어있지 않았다.<sup>26</sup> 그러나 하가점 상층 유적지에서 발굴된 비파형 동검은, 한족들이 만든 동검과 달리, 칼날과 손잡이가 따로 주조되었다. 한반도의 비파형 동검 역시 칼날과 손잡이가 따로 주조되었고, 후에 세형 동검으로 바뀌어 철기시대 초까지 사용되었다.<sup>27</sup>

돌을 사용하는 매장 방법, 토기의 형태, 청동 제품 등의 유사성은 만주를 몽골 고원과 바이칼 주변 지역으로 연결시킨다. Di Cosmo(2002: 67)에 의하면, 하가점 하층으로부터 상층으로 전환되는 과정의 실상은 하가점 상층문화와 북쪽의 몽골고원과 바이칼 주변지역 사이의 연관성이 구체적으로 구명될 때까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을 것이다. 대흥안령 산맥의 틈새뿐만 아니라, 흑룡강, 눈(嫩)강, 송화강, 요하 등을 연결하는 물길(水路) 역시 만주대륙 전 지역에 청동기뿐 아니라 철 제조 기술을 확산시킨 천연의 교통로 역할을 했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원시 알타이 계통의 언어를 구사하는 『선비-통구스』 역사-문화 공동체는 빗살무늬-민무늬 토기, 비파형 동검 등의 신석기-청동기 전통을 공유하며 흉산 문화와 연결이 되어 있다. 중국 대륙의 양소-용산 문화와 전혀 다른 요서의 신석기 흉산문화 유산의 상속-전승자는 만주대륙-한반도 전체를 포괄하는 역사-문화 공동체 이다. 한족을 양소문화의 후예라고 말 한다면, 『선비-통구스』족은 흉산문화의 후예라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sup>28</sup> 한반도를 포함하는 범-만주 권역(圖域)은, 유사한 문화적 전통을 공유하며 밀접한 역사를 함께한 『선비-통구스』 계통 종족들의 민족사학적 범주로서, 동아시아 역사체계 안에서 3대 핵심 권역의 하나를 구성해 왔다.

#### A.1.3. Korea Proper: 빗살-민무늬 토기, 비파형-세형 동검, 북방형-남방형 고인돌

중부만주-한반도 지역에서의 빗살무늬 토기로 대표되는 신석기 시대는 기원전 8000년 경에 시작된다. 사해(査海), 흉산, 신락(新樂) 문화의 산물인 줄문(縐紋) 토기는 한반도의 빗살무늬 토기와 유사하며, 중국본토의 신석기 토기 형태와는 아주 거리가 멀다.<sup>29</sup> 후기 신석기를 상징하는 새로운 형식의 민 무늬 토기는 기원전 2000년경 중부 만주와 한반도 전 지역에서 나타나기

<sup>24</sup> Pai (2000: 200,203) 참조.

<sup>25</sup> Barnes (1993: 160-1) 참조.

<sup>26</sup> Nelson (1995: 198-9) 참조.

<sup>27</sup> Barnes (1993: 162) 과 Nelson (1993: 133) 참조.

<sup>28</sup> Janhunen (1996: 224, 238) 참조.

<sup>29</sup> Barnes(1993: 109) 참조.

시작한다. 요녕성과 흑룡강성의 많은 유적지에서 발굴된 토기들은 기타 만주 지역과 한반도에서 출토된 민 무늬 토기와 유사하다.<sup>30</sup> 신석기 유적에서 발굴된 빗살무늬 토기에서 볼 수 있는 중부만주 유역과 한반도 사이의 유사성은 청동기 시대에 들어서도 민 무늬토기, 청동검 등의 형태로 지속된다.

중부 만주와 한반도를 연결시키는 특이한 유물은 고인돌이다. 아시아에서 고인돌은 인도로부터 만주에 걸쳐 발견되는데, 중부만주-한반도 지역에서 10만개가 넘는 최고의 밀도를 보인다. 고인돌은 요동 지방에서 많이 발견되고, 길림성 지역에서도 발견되지만, 밀집된 형태로 가장 많이 발견되는 지역은 한반도이다. Nelson(1993: 159, 163)은, 한반도에서 발견되는 고인돌의 엄청난 숫자는 고인돌의 원산지가 한반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게끔 하고 또, “영국 열도에서처럼, 예맥의 지배층들은 그들의 매장지로 자신들의 영역을 표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북방형 고인돌은 거대한 돌기둥 위에 최고 300톤에 달하는 관석(冠石)을 올려놓아, 지상에 석관 모양의 방을 만들었다. 남방형 고인돌은 마치 바둑판 모양 몇 개의 돌 위에 거대한 관석을 덮고, 지하에 석관이나 옹관을 묻었다. 매장품으로는 옥관 목걸이와 곡옥(曲玉) 등이 발굴된다. 북방형 고인돌은 신석기 빗살무늬 토기시대 말기쯤 나타난 것으로, 남방형 고인돌은 청동기 후기쯤 나타난 것으로 추측도 하지만, 이 두 형태의 고인돌은 발생 시기의 전후 관계가 불분명하고, 그 분포 지역 역시 상당히 중복된다. 철제 매장품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고인돌의 축조 관행은 늦어도 기원전 300년경에는 사라진 것으로 믿어진다.<sup>31</sup> 큐슈에서 발견되는 고인돌은 한반도에서 발견된 고인돌 보다 크기가 훨씬 작다. 고인돌은 예맥 지배층의 지위를 나타내는 상징이며, 고인돌 전통은 중부만주-한반도 예맥 문화를 서만주 동호-선비 문화나 동만주 말갈-여진 문화와 차별화 한다.<sup>32</sup>

방사성 동위원소 측정에 의하면 요동의 신락(新樂) 유적지에서 발견된 수수는 기원전 5000년 경의 것이다.<sup>33</sup> 한반도 남부는 쌀 농사를 짓는 예맥계 분파 집단의 본고장이었으며, 이들은 중국의 사서에서 총괄적으로 진(辰), 한(韓), 혹은 삼한으로 불렸던 원시 정치적 실체를 구성했다.

<sup>30</sup> Nelson(1993: 113-6, 158, 161)을 참조. Xu(1995: 66, 79)는 한반도의 빗살 무늬 토기가 요동의 음각 토기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말한다. Nelson(1995: 10)에 의하면, 이와 유사한 토기들이 시베리아 연안과 한반도, 일본 등 동북아시아 전 지역에서 발견되는데, 그 제조-장식 기법이 만리장성 아래 중국 본토에서 발굴되는 토기와는 전혀 다르다.

<sup>31</sup> Nelson (1995: 16, 147), Barnes (1993: 166-7) 참조.

<sup>32</sup> Nelson(1995: 16)은, 만주 평원과 요동반도의 고인돌들이 그 축조방법과 발굴물의 내용 면에서 한반도의 고인돌과 밀접한 연관을 보인다고 말한다. Xu(1995: 80)는 신석기 시대의 요동반도, 산둥반도, 한반도가 상호간에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산둥반도 지역에서 고인돌을 만들던 동이족들은 한족에 의해 흡수 동화되었거나, 만주 유역으로 밀려났을 것으로 생각한다.

<sup>33</sup> 신락(新樂) 지역은 심양 주변과 그 북쪽 지역을 포함한다. Nelson (1993: 108) 참조.



한반도 서부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쌀은 기원전 2400-2100년경의 것으로 측정된다.<sup>34</sup> 중국 남부에서 쌀 농사를 짓던 사람들 중 일부가 황해를 건너와 한반도 남부에서 생태학적으로 비슷한 틈새를 발견하고 예맥 원주민과 어울려 쌀농사를 지으며 살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여름철에 북동쪽 방향으로 부는 계절풍을 타고 황해를 하면, 양자강 하구로부터 한반도의 남서부까지 쉽게 도달할 수 있었을 것이다.<sup>35</sup>

한반도는 민족 사학적 (ethno-historical) 존재로서뿐만 아니라, 실제 지정학적 현실로도 만주 대륙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영어로 "Korea Proper"라는 표현은 중부 만주로부터 한반도에 이르는 예맥-통구스의 본고장을 지칭하는 민족사학적 범주로서의 한국을 의미한다. 소위 중부만주 송화강-요하 등의 유역(Manchurian Basin)과 한반도를 합친 공간을 지칭 하는 것이다.

#### A.1.4. 흉노족의 본고장인 몽골 초원

몽골 초원은 터키족의 선조인 흉노의 본고장이다. "초원지대는 마치 펌프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비가 충분히 올 때는 목초와 가축들이 잘 자라 유목민들을 흡수하지만, 가뭄이 계속될 때는 이 유목민들을 주변 지역이나, 이웃 나라로 내몰게 된다. 기원전 9세기경, 초원 지대의 기후가 갑자기 춥고 건조해졌는데, 몽골 고원의 목초지가 제일 먼저 이러한 기후 변화의 영향을 받았다. 기원전 8세기경, 가뭄이 초원지역 유목민들을 중국대륙으로 내몰았다. 그들은 한족에게 격퇴되었고, 연쇄 반응적인 민족 이동이 일어나, 일부 기마(騎馬) 유목민들은 당시 켈트족 세상이었던 유럽의 동부 변경인 다뉴브강 유역에까지 몰려가게 되었다."<sup>36</sup>

몽골 고원은 대 유라시아 초원지대의 동반부를 구성한다. 만주의 서쪽 경계로부터 시작하는 초원은 군데군데 높은 산들에 의해 단절이 되기도 하면서 헝가리 평원에까지 도달한다. 언뜻 보면 알타이 산맥과 천산 산맥이 서로 접하면서 유라시아 대초원을 절단하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커다란 틈새가 있어, 초원들이 계속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천산산맥의 북쪽 끝자락과 타르바가타이 준령 사이의 중가르 관문은 카자크 초원지대로 통하는 중앙 아시아의 최남단 통로이다. 알타이 산과 타르바가타이 사이의 이르티쉬 계곡 역시 서쪽으로 가는 통로가 된다. 몽골 고원의 돌궐-몽골 기병들은, 바이칼호(湖)로 흘러 들어가는 오르콘 강둑에서 출발하여

<sup>34</sup> Nelson (1993: 147) 참조.

<sup>35</sup> Kim (1986: 121) 참조.

<sup>36</sup> Fagan (2004: 201) 인용. Lamb(1995: 150)에 의하면, 중국에서는 대략 기원전 1,100-800년 기간 중, 빙하기 이후 가장 온화했던 기후가 끝나는 동시에 혹심한 가뭄이 왔다. Huntington의 기후-맥박을 동 이론(1907)에 따르면, 기후 조건의 변화가 유목민들의 이동과 정복활동을 야기하는데, 건조 주기가 심화되어 목초지가 말라버리면 유목민들은 새로운 목초지를 찾아 다니다가 다른 유목민과 싸우게 되고, 결국은 이웃한 정착 농경민족을 공격하게 된다는 것이다. Lattimore (1961: 331) 참조. Toynbee(1947: Vol. I-VI, 170)에 의하면, 주기적으로 건기와 습기가 반복되는데, 유목민들이 기르는 가축의 규모를 유지할 수 없을 지경으로 건조하게 되면, 주변의 문명 사회를 공격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카자흐스탄과 러시아의 초원을 거쳐, 헝가리 평원에 이르기까지 계속 달려갈 수 있었다. 이 초원의 통로는 타클라마칸 사막을 지나, "세계의 지붕"이라는 파밀 고원을 넘어가는 천산산맥 남쪽의 험난하기 짝이 없는 실크로드와는 전혀 성격이 다른, 초원의 "고속도로" 이었던 것이다.

발카쉬호(湖) 서쪽의 (터키쉬) 초원지대는 평균 고도가 해수면에 가깝지만, 몽골초원은 평균 해발 1500미터로, 한 여름에는 기온이 섭씨 38도까지 올라가고, 한 겨울에는 영하 42도까지 내려간다. 고비는 건조한 초원 지대로, 내몽골과 외몽골을 가른다. 고비 북쪽의 목초지는 바이칼호와 흑룡강 상류로 흘러 들어가는 작은 강들의 유역과 알타이 산맥의 동쪽 경사지로 구성되어있다. 알타이 지역은 여름의 한낮에는 섭씨 40도를 상회하며, 일조량이 18시간에 달한다. 바이칼호 주변 지역은 몽골 초원지대가 시베리아 삼림지역으로 바뀌는 접경지대에 해당된다. 황하(黃河)에 의해 말편자 모양으로 둘러싸인 오르도스 평원에 접하면서, 남쪽의 대마군산(大馬羣山), 서쪽의 만주 등을 경계로 하는 내 몽골도 수많은 유목민들을 부양하였다.<sup>37</sup> 돌궐-몽골 족들은 양고기를 주식으로 했고, 염소, 낙타, 소, 말, 등을 길렀다.

홍노의 신앙은 하늘을 받들고, 특정한 산을 신성시 하여 모시는 샤머니즘이었다. 그들은 무당이 하늘의 심령과 의사소통을 하여 병을 고치고, 적을 저주하며, 미래를 예언할 수 있다고 믿었다. 모든 원시 투르크-몽골족들에게 공통된 영적 문화는 샤머니즘의 이었으며, 이는 북 몽골로이드 인종 전체를 연결시키는 고리가 되었다. 한반도와 만주의 문화적 공통성은 남자보다 여자 무당을 선호하는 샤머니즘의 지역적 변형의 특색이다. 일본 열도의 아이누족 또한 시베리안 샤머니즘과 북 유라시아 곰 숭배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sup>38</sup>

#### A.1.5. 양소 문화의 후예: 만리장성 이남 중국대륙의 화하족

밀과 수수를 재배하는 비옥한 퇴적층의 황하 하류 유역은 대마군산(大馬羣山)에 의해 몽골 고원과 분리되어 있다. 황하를 따라 정주(鄭州) 서쪽으로 들어가면, 높은 산들로 둘러싸인 긴 회랑이 펼쳐진다. 낙양(洛陽)을 지나, 황하가 북쪽을 향해 급격하게 꺾이는 분기점을 통과하면 위수(渭水) 계곡과 장안(長安, 오늘날의 西安)이 나타난다. 천험(天險)의 요새를 방불케 하는 이 지역은 외적의 침입을 막는데 적합하여, 서주(西周), 진(秦), 전한(前漢), 수(隋), 당(唐) 왕조들의 수도가 위치하게 되었다.<sup>39</sup>

<sup>37</sup> 바이칼호 주변 지역으로부터 퍼져나간 종족들의 강인한 유전적 특성은, 혹한의 긴 겨울과 혹서의 짧은 여름, 강풍이 불어대는 최악의 기후 조건에서 목축과, 수렵, 그리고 원시적 소규모 농사를 지으며 살아남기 위해 투쟁을 해 오는 과정에서 형성된 진화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사람뿐 아니라 몽골고원 토종 말들 또한, 자연도태-적자생존 원칙의 결과, 짧고 굵은 다리와 조밀한 털로 덮힌 작으면서도 강인한 몸집에, 인내력과 생존능력이 뛰어난 유전적 유사성을 보여준다.

<sup>38</sup> Janhunen (1996: 175) 참조.

<sup>39</sup> 지금부터 대략 67,000년 전, 호모-사피엔스가 동아시아 지역에 출현하여, 사냥-수렵-채취 생활을 하던 전기 구석기 시대의 (불을 사용해 동굴을 밝힌 北京原人を 포함한) 호모-에렉투스를 대체하고, 중국대륙에 중기 구석기 시대를 전개했다. 후기 구석기시대는 대략 50,000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기

중앙 아시아로 이어진 건조한 하서 주랑(河西走廊, 만리장성 안쪽으로 감속성의 난주와 둔황을 지나는 회랑)은 중국본토 서북지역을 티벳 고원, 투르키스탄 초원, 서 아시아 등으로 연결해 준다. 회수(淮水) 남쪽의 양자강 유역은, 쌀을 수경 재배 2모작 하는 지역으로, 자고로 수전(水戰)에 익숙지 못한 유목민 기병들이 쳐들어 왔다가 진흙탕에 빠져 엄청 고생을 겪곤 했다. 몽골 원나라 이전의 이민족 정복왕조들이 북부 중국만을 차지하는 것으로 만족했던 이유를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기하학적 문양으로 장식된 채색 토기가 특징인 양소문화는, 감숙, 섬서, 하남성 서북지역을 포함하는 위수-황하 유역을 따라, 대략 기원전 5000년경에 출현하여 2,000여 년간 지속되었다. 이 양소문화는, 서부 아시아로부터 중앙아시아의 초원과 산맥을 가로 질러, 하서주랑을 통과 해 중국 대륙에 도달 했었을 가능성이 크다. 양소문화 지역에서 사용되던 원시 한장어(漢藏語) 계통 언어가 마침내는 전 중국대륙의 모든 언어를 대체 하게끔 되었다. 현대 만다린(普通話)은 비록 구조적으로 상당히 알타이어 영향을 받았지만, 근본적으로 한장어 계통의 언어인 것이다.

회전판 위에서 윤기가 나는 얇은 두께의 흑색 토기를 만들던 황하 하류의 용산(龍山) 문화는 기원전 3000년경에 나타나 2200년경까지 지속된다. 신석기 시대의 중원(中原) 사람들은 곡식을 토기에 저장하고, 활로 사냥을 하고, 돼지와 개를 기르며, 삼으로 천을 짜고, 비단을 생산하였다.

신석기 문화는 마침내 청동기 문화(2200-500 BCE)를 꽃피워, 하(夏, 수도는 洛陽 부근, 2200-1600 BCE), 상(商/殷, 鄭州/殷에 도읍, 1600-1300-1046 BCE), 주(周, 초기 수도는 西安 부근, 1046-256 BCE) 시대를 전개한다. 구리와 주석을 사용해 청동기를 만들고, 나무를 사용하여 점토를 시멘트처럼 단단하게 찍어내어 왕궁을 건설했으며, 각종 의식과 제례도 지냈다. 군대는 (단순히 나무를 휘어 만든 것이 아니라, 동물의 힘줄을 사용 해 뿔이나 뼈를 합성한) 복합식 활, 청동으로 날을 세운 창, 미늘-창, 청동 투구 등으로 무장을 하고 싸웠다. 청동기 초기의 유적지는 황하 부근의 하남성에서 발견된다. 상 나라의 청동 제기(祭器)는 인류가 만든 가장 뛰어난 예술 작품의 하나로 손꼽힌다. 말이 끄는 수레는 서 아시아에서 기원전 1500년경부터 사용이 되었으며, 중앙 아시아를 거쳐, 기원전 1200년경쯤 상 나라에 전해졌다. 청동기와 철기의 사용 역시 서 아시아가 시기적으로 앞섰다.<sup>40</sup>

양자강 유역에서는 이미 기원전 5000년경에 쌀이 재배되었고, 개와 돼지도 사육되었으며, 기원전 3000년경이 되면 물소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쌀은 동남 아시아에서 유래하였다. 당시 (苗族을 포함하는) 남부 중국인들은 유전적으로 남 몽골로이드 계통 인종에 속했으며, 남방

원전 12,000년경에는 신석기 시대가 시작되며, 기원전 8,000년경에는 농업이 시작된다. 중동에 정착한 사람들은 최초로 밀과 보리를 재배하기 시작한 반면, 북부 중국에 정착한 사람들은 수수를, 남부 중국에 정착한 사람들은 쌀을 재배하기 시작했다.

<sup>40</sup> 광대순은 홍산 문화의 가장 대표적인 수공업이 바로 청동 제품의 주조이었으며, 늦어도 기원전 3,500년경에 이미 청동 주물제품이 존재했었다고 믿는다. 즉, 산업이란 측면에서 보면, 청동 주물을 만들고, 토기를 만들고, 옥을 깎아 장신구를 만드는 것이 홍산 문화의 3대 업적이었다고 말한다. Nelson (1995: 41-43) 참조.

오스트릭 계통의 언어를 사용했다.<sup>41</sup>

소수였던 주(周) 부족은 북방 유목민과의 긴밀한 접촉을 유지했으며, 후에 위수 계곡에 정착하면서 상당기간 상 나라를 받들게 되었다.<sup>42</sup> 곽대순(1995: 178)은 당시 화북 평원 상(商/殷) 문화의 기원을 서만주 하가점 하층 문화에서 찾았다. 기원전 1046년경, 강력한 힘을 확보한 주 부족은 드디어 상 나라를 정복하게 되었다.<sup>43</sup>

안장과 재갈을 사용해 말을 타는 기술은 대략 기원전 900년경에 개발되었다. 기원전 800년경 이후, 목초지를 따라 이동하는 유목민들이 유라시아 대륙 전역에 걸쳐 정주-농경 민족들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기원전 400년경부터, 말을 타고 활을 쏘는 유목민들이 중국 사서에 호(胡)라는 명칭으로 기록되기 시작했다. 전국시대의 북방 변경지대 국가들은 생존을 위해, 새로 등장한 유목 전사들로부터 말 타며 활 쏘는 기법을 배워야 했다. 기마전에 대비 해 말들을 확보하고, 유목민 모양 혁대를 매고, 발목에 바지를 동여매게 되었다. 연(燕)과 조(趙)는 기원전 300년경을 전후로 장성(長城)을 쌓기 시작했다.

중국 본토에서는 대략 기원전 500년경부터 철기시대가 시작된다. 전국시대에는 고로(高爐)를 사용해서 고탄소 철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철제 도구와 칼들은 단조(鍛造) 공법보다는 주물 형틀(鑄范 거푸집)을 사용해서 대량 주조 되었다. 철제 농기구와 무기의 사용은 농업 생산성의 향상과, 철제 무기로 무장된 대규모 보병의 등장을 의미 했다. 징집된 농민 병사들은 새로이 개발된 석궁(石弓)을 사용했다. 기원전 221년에 진시황(秦始皇 r.246-210 BCE)의 천하 통일을 가능케 한 기술 진보가 있었던 것이다. 진 나라는 동주(東周) 제후국들 중 가장 서쪽 변방에서 출발했는데, 이 장소는 오늘날 섬서성의 위수 유역이며, 일찍이 서주가 발흥했던 곳이기도 하다. 이곳에서 진은 주 왕실을 위해 말을 기르고 유목민의 침탈을 막는 임무를 수행했었다. 중원의 상 나라를 정복한 서주(西周)와 천하를 통일한 진(秦)나라의 상무적인 기상은 중국대륙 서북방 끝자락에서 유목민들과 지속적인 접촉을 한 경험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sup>44</sup>

<sup>41</sup> 티벳족은 인종적으로는 북 몽골로이드 계통에 속하지만, 알타이 계통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남방 오스트릭 계통도 아닌, 한장어(Tibeto-Chinese) 계통의 언어를 사용한다. Cavalli-Sforza (2000: 146-8) 참조.

<sup>42</sup> Fairbank 와 Goldman(1998: 39) 참조.

<sup>43</sup> 주 나라는 봉건제도를 실시하여, 50명도 넘는 왕족들에게 봉토를 나누어 주었다. 기원전 771년에 주 왕실이 수도를 서안에서 낙양으로 옮기면서 동주(東周 770-256 BCE)시대가 시작된다. 춘추시대(春秋 722-481 BCE)에는 약 170여 개의 귀족 가문이 제각기 소규모의 독립국가 형태를 유지하였다. 소 빙하기(小氷河期 400 BCE-300 CE)의 시작과 함께 7웅(혹은 7개의 霸者들)이 활약하는 본격적인 전국(戰國) 시대(403-221 BCE)가 전개된다.

<sup>44</sup>진시황은 기원전 221년에 천하를 통일 하자마자 전국시대에 북방 제후국들이 축조한 성곽들을 확장-보수-연결하여 소위 만리장성을 완성했다. 만리장성은 16세기에 와서 명 조정에 의해 대대적으로 복구-확장되었다. 동쪽 산해관(山海關)에서부터 시작해 서쪽의 중앙아시아 가옥관(嘉峪關)에 이르기까지 장장 2,400Km를 뻗어있는데, 전통적으로 중화 문명의 북방 한계선을 나타내며, 소위 “야만

연 나라는 기원전 222년에 진시황에게 정복 당했다. 기원전 213년, 진시황은 오르도스 초원 지대로부터 흉노를 바이칼호 주변의 그들 본고장으로 쫓아 냈다. 그러나 진 나라 군대는 황하를 건너지 못했고, 진(秦 246-207 BCE)이 망하자마자 흉노는 다시 이 지역을 점령했다. 단명의 진 제국의 뒤를 이어 한(漢 206 BCE-220 CE) 제국이 등장한다.<sup>45</sup>

동아시아 역사: 왜곡(歪曲)의 시정(是正) ©2012 홍원탁(洪元卓) 서울대 명예교수 (<http://www.HongWontack.com>)

---

인"들의 강역이 시작되는 경계선을 형성하는 것이다. 진시황은 법을 초월한 전제 군주로서 황제 중심의 독재 체제를 공고히 하였다.

<sup>45</sup> 왕망(王莽)의 신(新)에 의한 8-23 CE 년간의 단절 기간 포함.